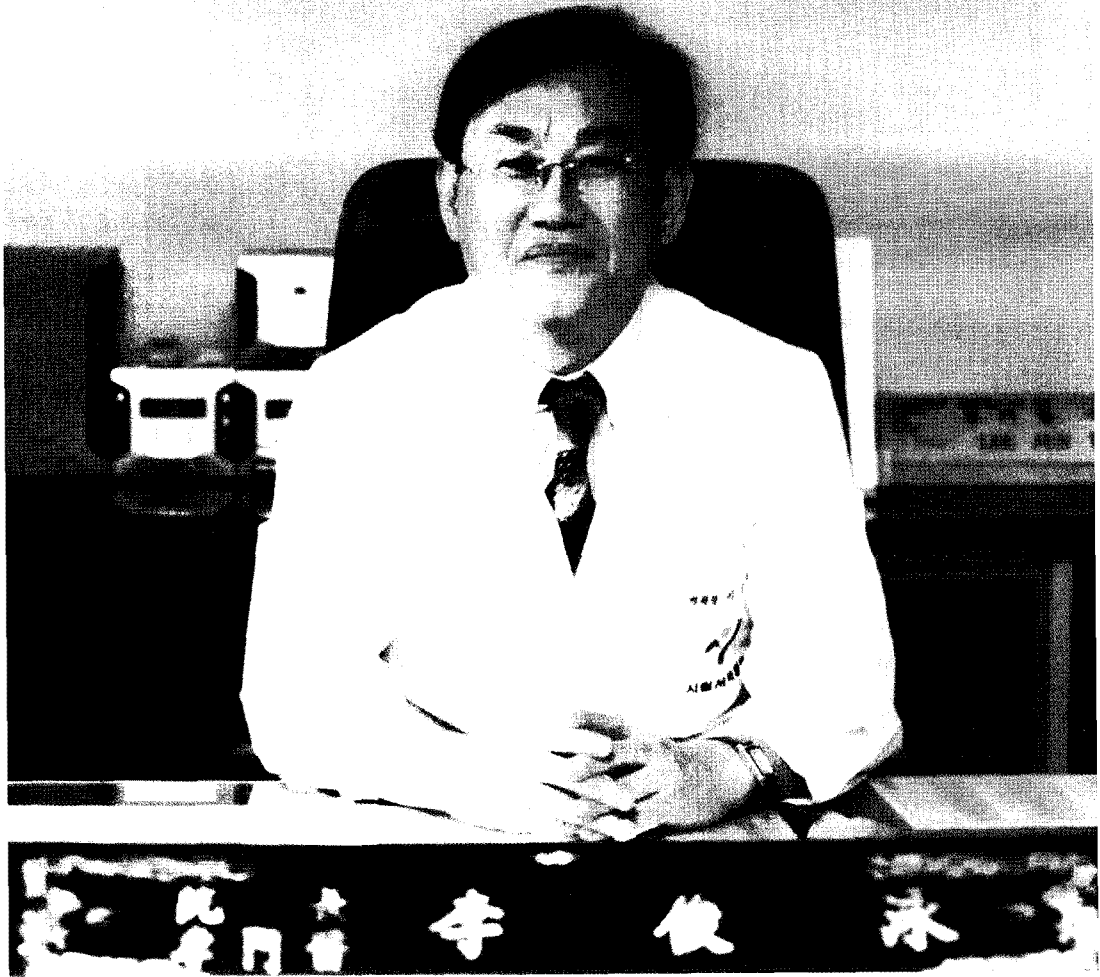


서울시립서북병원장 이준영 원장

“서북병원의 오랜 경험 바탕으로  
결핵 연구해보고파...”



시립서북병원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버스정류장에서 5분 거리, 라는 안내문을 따라 간 길이였지만 예상보다 훨씬 높고 먼 위치에 서북병원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 마치 결핵이 완치되기까지 힘들고 긴 치료 여정과도 같이 말이다.

시립서북병원의 위치는 우리나라 결핵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48년 시립순화병원 결핵진료소 발족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의 결핵치료는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위주로 하는 사나토름 요법 중심이었다. 서북병원이 위치한 역촌동은 결핵 환자들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나토름 중심의 결핵 치료를 위한 최적의 장소였을 것이다.

1964년 시립서대문병원으로 개칭한 이후 서북병원은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과 함께 우리나라 결핵 입원치료의 핵심을 담당해왔다. 그 후 2002년 새롭게 병원을 짓고, 2004년 결핵 이외에 노인·치매병동을 개원하고 2005년 '시립서북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변화를 맞이했다.

결핵에 대한 인식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결정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지만 여전히 서북병원은 입원을 필요로 하는 결

핵환자들에게 고맙고도 소중한 병원이다. 서북병원의 수장이며 19년간 서북병원을 지킨 의사이기도 한 이준영 원장과 우리나라 결핵의 문제 전반과 그에 있어 서북병원의 역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 **흉부외과 의사로서 결핵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을 터. 최근의 국내 결핵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우리 병원의 경향으로 보면, 환자가 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더 이상 줄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로 깊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결핵이 늘지 않는다는 사실로 결핵문제를 작게 여기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결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핵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지나간 시절의 질병 쯤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최근 결핵의 중요한 양상을 짚어내는 모습에서 오랜 세월 결핵문제를 고민해온 이의 노련함이 느껴졌다.

“우리병원 입원환자들 중 중증환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국립의료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병원에서

도 겪지 못한 상황을 이 병원에 와서 일상적으로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결핵환자들이 각혈을 많이 하는데, 이론상으로 배운 '각혈'과 실제로 목격한 각혈은 정말 달랐습니다. 이 병원에 와서 양동어로 한 가득씩 피를 쏟아내는 환자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런 광경은 어느 대학병원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이런 증증환자들이 많이 줄은 반면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결핵환자가 일년에 200명씩 되었는데, 최근에는 40여 명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서북병원에는 증증환자나 폐결핵과 그 합병증으로 사회적인 격리, 혹은 컨트롤이 필요한 환자들, 행려자 노숙자이면서 결핵환자인, 일반 수용시설에서 받아주지 않는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2009년 1월부터는 다제내성 결핵환자 중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외래환자의 경우 처방전에 의한 결핵약 구입비용 전액(외래비용 본인부담),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비중 본인부담금의 70%를 입원기간 중 3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병원장 이전에 서북병원에서 10년 정도 흉부외과의로 근무하면서 이준영 원장은 결핵퇴치사업에 대한 소명의식 같은 게 생겼다고 한다. 서북병원의 원장으로 병원의 크고 작은 일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결핵에 대한 애정 만큼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결핵사업을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핵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구요. 서울시 출입기자분께 결핵 관련 통계를 보여드리니 정말 깜짝 놀라시더군요. 당면한 결핵문제가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준영 원장은 그동안 서북병원이 증증결핵환자 처리에만 급급했던 것 같다면 이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증증환자는 줄고, 다제내성은 증가하며, NTM(비결핵항산균)이 증가하는 것이 최근의 결핵 패턴이라면 당연히 결핵사업의 방향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제가 병원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과 여력이 주어진다면 결핵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함께 연구사업을 해나가고 싶습니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